

“호남 대표 정론지… 동방의 목탁·전라도 등불”

독립운동·친일사료 발굴·보도
“호남의 정신 선양 민족혼 알려”

투철한 사명감에 사회정의 실현
“정론직필로 100년사 이어가길”

“광남일보는 언론문화 창달의 기수이자,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민족 자존심을 지킨 호남 지역의 대표 언론사입니다.”

22일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이 된 심정섭씨는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남일보에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공정하고 올바른 보도를 통해 정론직필에 앞장선 호남 대표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호남 정신을 아우르는 민족지를 무등산이 격려하고, 남해가 응위하니 아저 민족혼을 진작하지 않겠나”고 되물으며 “민족시인” 이은상이 일제강점기 때 무등산과 남해를 바라보면서 호남의 얼을 읊은 시를 떠올렸다.

심 편찬위원이 운을 댄 이은상 시인의 ‘무등산’은 / 삼존석 십대아래 섰다 거닐다 / 무등산 규봉암에 밤을 새이고 / 김장군 주검등을 타고내리며 / 두주먹 쥐어보는 젊은이 마음 / 등으로 이뤄졌다. 또 이은상 시인이 읊은 ‘남해’는 / 남해는 제법 뽕넝 개척의 바다 / 다도해 돌아나면 파도가 높다 / 장보고 청해대사 무역의 왕자 / 한 팔로 동아전지 흔들더라 / 등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죽은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전설과 유적을 추모하니 그 애국충정이 광주학생

심정섭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



심정섭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이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남일보에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공정하고 올바른 보도를 통해 정론직필에 앞장선 호남 대표지”라고 평가했다.

독립운동과 광주 5·18민주항쟁의 정신으로 승화됐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라도는 호남인의 충혼이 가는 곳마다 깃들어 있다”면서 “신라의 해상왕 장보고 장군의 상무정신, 고려 대몽항쟁의 정화인 진도의 삼별초

웅혼이 대표적이다. 임진왜란 때 구국의 대열 선봉으로 나라를 지킨 민초들의 애국심에 대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 사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 없이 나라도 없다)’이라고 극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학농민운동과 민족종교인 대종교·원불교·보천교의 발생지가 호남지역임을 미뤄볼 때, 광남일보는 호남대표 일간지로서 이를 계승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심 편찬위원은 광남일보가 2004년 3월1일

‘조선공로자 명감’ 취재·보도로 친일청산운동의 선도가 된 것은 민족정기의 진작이며 민족자본의 표상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조선공로자명감’은 1935년 조선총독부가 시정 25주년을 기념하게 위해 펴낸 인명록이다. 일제 통치에 직간접적으로 적극 협력한 민간 공로자를 선정해 영구 기록하기 위한 취지로 총 1808쪽에 이르는 4·6배판의 일어판 양장본이었다. 일제식 민동치에 앞장선 일본인 2560명과 조선인 353명 등 총 2913명의 명단과 친일행적이 소상하게 기록돼 있다.

아울러 광남일보는 임시정부요인의 유품과 사료, 이완용 족자·을사5적 편지·조선총독부 임명장 등 친일자료 및 애국반원명부(愛國班員名簿), 독립운동가 해공 신익희 선생 간첩 원본, ‘전라남도 유림시찰록’, 독립운동 비밀단체 공고계 사료, 일제하 금융조합 광주서 첫 창설 뒷받침 자료, 신간회 지역활동 입증 사료, 일제 조선 왕궁 유린 그림인 조선경성시조전 및 친일 행적 기록 부고장 공개 등 수많은 희귀자료들을 알렸다.

그는 “20년이 넘도록 광남일보가 독립운동, 친일사료를 적극적으로 발굴·보도해 호남의 정신을 선양하면서 민족혼을 후손에게 전달했다”면서 “광남일보를 통해 중국 공자가 논어에서 설파한 ‘해동군자국(海東君子國)’을 향해 땃목을 타고 가겠다는 비원이 멀지 않아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호평했다.

이어 “일제시대인 1929년 인도의 시정(詩情)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썼던 시처럼 대한민국이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는 표현은 허언이 아님을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광남일보는 호남의 목탁이자 전라도의 등불이다. 앞으로 정론직필의 100년 역사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언론 됐으면”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고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언론이 ‘팩트에 기반한 진실된 목소리’를 끝까지 지켜주길 바란다. 특히 광남일보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시민 곁에 있어 주길 기대한다.

대선 등 전국 이슈에 지역 목소리가 묻히기 쉬운 때일수록, 지역 공약과 현안을 조망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한 책무다.

광남일보가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책과 공론의 장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돼 주길 바란다. 시민이 제안한 정책이 사회적 의제가 되기 위해선 지역 언론의 집중이 필요하다.

또 언론은 시민사회를 뒷받침하는 ‘중

간 지원 조직’에도 주목해야 한다.

2025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과 옛 전남도청 복원이 본격화되는 문화적 전환점이다. ‘완전체’로 처음 공개되는 문화전당의 상징성과 미래 비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역 언론의 점검이 절실하다.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남일보가 앞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권익과 지역 공공성을 지키는 언론으로 더욱 충실해주시길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당부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촉매’ 역할 기대”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광주는 60만 노동자가 살아가는 도시다. 하지만 광주의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광주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다면 그들은 결국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아니라, 광주가 직면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공공부문에서도 여전히 무기계약직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언론의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 광남일보와 같은 지역 언론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정치인들과 공공기관들이 인들과 공공기관들이 인들과 공공기관들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 시민들은 양질의 정치 서비스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광주가 차별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

광남일보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가치 있는 기사 많이 발굴해 주길”

장성 동화면 최광희씨



광남일보는 지역 소식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알리는 매력 있는 종이신문이다.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면 금방 잊어버리지만 종이신문은 눈도 안 아프고 보기 편하며 이해하기도 쉽다.

장성 동화면에서 냉장고 부품 수출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경제 소식을 필수적으로 지켜본다. 정부, 지자체, 경제 관련 협회 등의 정책, 사업, 경제 흐름을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 ‘중소기업을 키우자’, ‘떠오르는 스타트업’의 경제 기획·특집 기사는 다룬 중소기업 경영인·대표가 어떤 사업을 하고 경영하며 직원들을 관리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스스로에게 적용하며 사업이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

다.

이와 함께 지역 언론인 KIA타이거즈 소식을 상세히 알려줘 흥미로웠다. 특히 지난해 KIA타이거즈

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통산 12번째 우승 달성했다는 소식을 광남일보를 통해 접하고 지역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현재 정보화시대를 넘어 디지털 홍수시대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남일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광남일보가 저급처럼 구독자, 지역민이 읽을만한 가치 있는 기사를 많이 발굴해 주길 바란다.

“장애인 삶에 ‘동행’하는 언론 되기를”

조용호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지역사회는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로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장애인의 삶은 녹록지 않다. 장애인은 이동, 교육, 고용,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 언론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적 공감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를 밀접하게 다뤄야 한다.

광남일보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의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지역의 여론을 형성해왔다.

이제는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사

람’이라는 시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목소리가 권리로써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보도와 기획이 필요하다. 장애인 접근성, 탈시설 정책, 장애인 노동권, 문화예술 참여 등은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변화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다.

광남일보가 장애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 시민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활력 넘치는 따뜻한 소식 전달을”

조광우 장어촌 사장



광남일보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이야기를 지역민에게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동구 산수동에서 20여년 간 광남일보를 정기구독하면서 지방신문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또 실제 지역민에게 지자체 정책이나 사건 등을 다각화된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배울 수 있었다.

지자체 정책, 사고 등 기본적인 활동 외에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기획기사를 만들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지역민에게 응원 받을 수 있고, 신문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

침체 상황. 빈 점포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보고 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남 일 같지 않다.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지역에 살고 있기에 지역신문 구독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광남일보는 광주·전남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광남일보가 지역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알 권리 보장은 물론 편협한 시각을 가지지 않고 지역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기사를 적극 발굴해주길 바란다.

“청년이 말한다, 지역 언론 더 가까이”

30살 청년 최태양씨



2025년 지금, 청년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

불안정한 일자리, 부담스러운 주거 문제,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지역 내 청년의 자리는 많은 이들에게 고민이 된다.

친구들이 하나 둘 지역을 떠나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청년들은 광주·전남에 남아 묵묵히 삶을 이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정치나 언론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다르다.

일상 속 문제들이 결국 제도와 정책, 그리고 언론과 연결돼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뉴스 한 줄에도 시선이 머문다. 그래서 이별 때일수록 지역 언론의 역

할이 더욱 중요하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민의 삶과 목소리를 진실로 담아내야 한다. 특히 청년을 ‘정책 대상’이나 ‘지원의 수혜자’로만 보지 말고, 이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청년 스스로의 목소리로 전하는 보도를 보고 싶다. 더불어 다양한 시민들이 마을과 거리, 교육 현장에서 별이는 작은 움직임들도 조명돼야 한다.

광남일보가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한 신뢰 있는 보도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꾸준히 담아내는 언론이 되길 바란다.